



- 생산적 금융
- 신뢰받는 금융
- 포용적 금융

보도	2018.8.7.(화) 14:50	배포	2018.8.7.(화)
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

**제 목 : 인터넷전문은행, 경쟁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 
금융을 바꿔 나가겠습니다.**  
-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실시

- 8월 7일(화)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간인 서울시청의 시민청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개최하여 성과와 혁신방향 논의
-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간 금리·수수료 경감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둠
-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, 빅데이터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
- 금융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행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갈 계획

## 1 개요

- '18.8.7(화) 서울시청의 시민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1년 성과와 금융혁신 방향을 논의

- ‘시민청’은 서울시청 지하 1층에 마련된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보고 즐기고 휴식하는 공간으로서
-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(mobile)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과 일맥상통함
- 금번 행사를 ‘시민청’에서 개최함으로써 금융혁신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큰 편리함과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

### < 현장방문 개요 >

- 일시 : '18.8.7.(화) 14:00~14:50 / 장소 :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
- 주요 참석자
  - (정부) 금융위원장, 과학기술정통부 장관, 방송통신위원장, 국무조정실장,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
  - (지자체) 박원순 서울시장 등
  - (국회)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,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, 민병두 정무위원장, 박영선 의원, 정재호 의원 등
  - (금융소비자) 인터넷전문은행 고객들, 소비자단체(금융소비자연맹, 금융소비자네트워크, 소비자시민모임) 대표 등
  - (금융·ICT업계) 인터넷전문은행 임직원, 핀테크기업 임직원, 각 금융협회장, 금융유관기관장, 은행장 등
  - (관계 전문가) 금융발전심의회 위원, 학계 전문가 등
- 행사 주요내용
  - 인터넷전문은행 대표 발표 \*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성과 및 향후 계획
  - 핀테크기업 대표 발표 \*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협업을 통한 성장사례
  - 고객 대표 발표 \*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으로 달라진 생활
  - 고객·핀테크기업·소비자단체 영상 \* 인터넷전문은행에 바라는 점
  - 금융위원장 말씀 \* 인터넷전문은행 1년 성과 및 규제혁신 필요성
  - 인터넷전문은행·핀테크기업의 전시부스 시연 관람

## 2 행사 내용

□ 첫 순서로 인터넷전문은행 대표와 핀테크기업 대표,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대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등에 대해 발표·발언

○ 먼저,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음

- 금융과 기술이 결합되어 은행권의 혁신을 촉진하고 수수료를 인하하며 금리 경쟁을 선도하였음

- 기술혁신으로 모바일서비스 편의성을 강화하고 상담챗봇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
- 핀테크·유통·보안기업 등과 협업으로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고 금융혁신을 주도하겠음

○ 이나경 뱅크웨어글로벌(주) 수석(42세)은 핀테크기업으로서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협업 경험에 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설명

- 케이뱅크는 은행 IT시스템 구축시 기존 대기업 대신 핀테크기업인 뱅크웨어글로벌(주)과 협업하여 모듈형 新코어뱅킹\*을 채택

\* 모듈형이므로 비즈니스 환경 변화 및 고객의 신상품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

- 뱅크웨어글로벌(주)는 협업 이후 2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70% 성장\*하고, 직원이 2배 이상 증가\*\*하였음

\* '15년 210억원 → '17년 355억원      \*\* '15년 160명 → '17년 330명

- 이를 계기로 Bank of Philippine Island\*의 수신·결제시스템 구축 수주를 포함하여 필리핀, 일본 등 해외로까지 진출하게 되었음

\* 필리핀 은행 중 자산규모 3위('18년 기준)

○ 오진석(38세)씨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경험을 소개

- 사업 준비로 인한 일시적인 무직 상태에서도 대면심사 없이 필요한 자금을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중금리대출을 통해 구하였음
-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(두 자릿수 금리) 이용이 불가피했었는데 훨씬 낮은 금리(7%대)로 대출을 받음

○ 엄성은(55세)씨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해외송금 서비스 경험을 소개

- 자녀가 해외유학 중이어서 수시로 해외송금이 필요한데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후 수수료 부담이 1/5~1/10 수준으로 감소했음
-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함

□ 다음 순서로, 인터넷전문은행 고객, 핀테크기업, 소비자단체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으로 달라진 점과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에 바라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을 시청하였음

○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들은 24시간 공인인증서 없는 거래, 계좌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한 점 등 편의성이 혁신적으로 제고된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

- 또한, 금리가 비교적 저렴하고 비대면으로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음

○ 한편, 기업 고객인 자이냅스(주) 주동원 대표는 창업벤처기업인도 이용할 수 있는 신상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

○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금융경쟁 촉진 유도 차원에서 더욱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음

□ 현장에 마련된 전시부스에서는 계좌개설 서비스,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을 결집하여 “내 손 안의 비서”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을 시연했음

○ 케이뱅크는 지점 방문없이 “**10분 이내로 신속하고 편리하게**”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설명

- 과거 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하며 30~40분이 소요되던 은행 계좌 개설의 편의성 향상

➡ 인터넷전문은행이 향후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고객의 접근성 확대로 국민편익을 더욱 제고해 나갈 전망

○ 카카오�뱅크는 전·월세 대출 이용 예정자가 필요시 “**주말·휴일에 이사**”할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“**전월세보증금 대출**” 신청을 시연

\* 일반 은행에서는 주말이나 휴일 등 점포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 이사하는 경우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어려움

- 모바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금리·한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서류까지 제출할 수 있어 편의성 제고

\*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부담없이 조기상환도 가능

➡ 인터넷전문은행이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선도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전망

□ 또한, 핀테크업체인페이콧(주)는 QR코드 간편결제를 시연했음

○ “**대학생 등 신용카드가 없는**” 경우에도 상품 구입대금을 스마트폰의 QR코드 촬영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 가능

\* 구매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용 가능(카드결제도 연결 가능)

- 외국의 경우 先충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비해, 금번 시연에서는 은행 계좌·카드 연결 등을 통해 충전없이 결제

○ 단말기 없이 앱투앱(App-to-App) 방식으로 결제하여, 판매자는 단말기 비용\* 및 결제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음

\* 설치비 15만원 / 관리비 월 1만원 → 앱 비용 1.5~3.5만원

### 3 금융위원장 발표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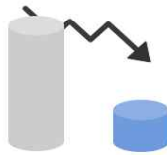
- 우리 사회에 금융혁신에 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
  - 현재의 금융산업과 시스템의 변화가 국민과 금융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
- 규제개선과 경쟁을 통해 보다 큰 혜택을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금융혁신의 목표
  - 1년 전 출범한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수 700만명, 총 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음
  -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은 은행권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 넣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혜택을 늘리고 있음
- 세계 각국에서는 ICT 기술이 금융과 융합한 핀테크 혁명이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으나 우리의 대응은 뒤쳐진 실정
  -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, 빅데이터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할 계획
- 이와 함께, 전반적인 금융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추진
  - 금융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경쟁·혁신을 촉진하고,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빅데이터 활성화 등도 과감하게 추진
- 경직된 사고와 그림자규제 등으로 개혁의 장애물이 되었던 감독당국의 행태에 대하여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, 일하는 방식도 바뀌 나갈 계획
  - 급변하는 산업지형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금융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과 금융감독행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가겠음

## 인터넷전문은행 규제개선에 따른 예상효과



### 국민의 금융이용이 더욱 쉬워집니다.

- 금융거래에 필요한 서류·절차·시간을 줄이는 **내 손안의 비서** 역할 수행
- 금융소외계층의 이용 편의성 제고



### 국민의 금융부담이 더욱 낮아집니다.

- **중금리대출**을 통한 금리부담 경감
- **간편결제** 등으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
- ATM 이용, 해외송금 수수료 경감



###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.

- HW, SW, R&D 등 4차산업의 **고급 일자리**를 지속 확대
- 기업의 핀테크산업 투자 활성화



### 혁신기술의 도입이 빨라집니다.

- 고객의 **핀테크 혁신** 니즈를 조기 발굴
- 혁신기술 채택시 빠른 확산



### 한국기업의 활동범위가 넓어집니다.

- **핀테크기업과의 협업**으로 해외진출 촉진
-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제휴 및 해외진출

## 4 인터넷전문은행 규제개선에 따른 기대효과

### ① 국민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향상

- 계좌개설, 자금이체, 대출 등 금융거래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
- 간소화된 서류·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 확대
- 금융거래 전반에 있어 혁신적 서비스 지속 발굴
  - \* 상담챗봇 고도화, 간편결제 활성화 등
- 고령층\*,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이용편의성 제고
  - \*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단한 기능만 이용할 줄 알아도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화된 서비스 지원 등

### ② 국민의 금융부담을 경감

- 신용정보부족자(Thin-filer), 청년층 등 중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확대
  - \* 기존 2개 인터넷전문은행은 '22년까지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연 3.1조원으로 확대하는 계획 수립
- 소상공인,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확대 등으로 금리·수수료 부담 경감
- ATM 이용, 해외송금 등 금융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속 경감

### ③ 양질의 일자리 확대

-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R&D 등 연관산업 발전을 촉진하여 국내외 양질의 일자리\* 확대
  - \* 영업점 대신 IT 플랫폼을 활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전후방 IT 연관 효과가 매우 큰 분야
  - \* 기존 2개 인터넷전문은행만으로도 총 5천명의 중장기적인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



## ○ 핀테크 등 연관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

\* 기존 2개 인터넷전문은행의 직접투자는 '18.7월 기준 16,800억원

### ④ 혁신기술의 신속한 도입 · 확산

- 금융산업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이 금융 이용시 필요한 혁신 기술 니즈를 조기에 발굴
- 인터넷전문은행에서 혁신기술을 채택할 경우 고객의 접근성이 높은 특성상 빠른 확산이 가능

### ⑤ 금융회사 · 핀테크기업의 해외진출 선도

- 핀테크기업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핀테크기업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진출할 수 있도록 촉진
- 인터넷전문은행 운영 경험을 적극 활용·공유하여 외국 금융 회사와 영업제휴 또는 해외진출 추진

## 5 향후 계획

□ 정부는 금융산업 경쟁촉진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

- ① (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)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, 소업권의 진입장벽 완화 및 진입과정 투명성 제고 추진
- ② (핀테크 혁신 활성화) 신규 일자리 창출에 특화되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
- ③ (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) 빅데이터 활성화,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정보보호 내실화

-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금융규제 개선을 위한 「인터넷전문은행법」,  
「금융혁신지원특별법」, 「신용정보법」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 
논의를 적극 지원

<참고1>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기업의 협업사례

<참고2>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기업의 시연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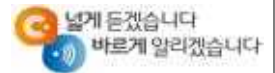
<참고3> 국회에 제출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

별첨 : 금융위원장 발표말씀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□ 新코어뱅킹(케이뱅크와뱅크웨어글로벌간 협업)

- IT시스템을 지원기능(계약, 조회, 정산 등)별로 모듈화하고 금융서비스에 따라 기능별 모듈을 조합하여 고객거래 지원

활용기술	인터넷전문은행 이전	인터넷전문은행 이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오픈 API</li> <li>• 클라우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성 대기업 솔루션을 채택하여 사용</li> <li>• 신상품 출시를 위해 IT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수정할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핀테크기업과 협업 확대)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과의 협업 시너지 발현</li> <li>• (시스템 유연성 제고) 신상품 출시 등에 대응하여 IT시스템의 신속한 수정 가능</li> </ul>

<모듈형 新코어뱅킹 구조>



<뱅크웨어글로벌 개요>

- 대표자 : 이경 조(65세) / ■ 설립일 : 2010. 6. 3.
- 주요 서비스 내용
  - 금융기관 대상 컨설팅 (PI, ISP, EA, 현행시스템 진단 등)
  - 금융솔루션(BX CBP, BX Product Factory, Internet Finance등) 판매 및 구축
  - 인프라솔루션(BX Framework, BX Q# 등) 판매 및 관련 구축
  - 클라우드 시스템의 운영대행, 구축/전환 컨설팅
- 주요 연혁
  - 2018년 : Bank of Philippine Island 수신&결제시스템 수주
  - 2017년 : K Bank의 코어뱅킹 시스템 구축
  - 2014년 : 신한은행의 BPR 시스템 Upgrade 프로젝트 수주
  - 2013년 : 기업은행 포스트 차세대 프로젝트 상품팩토리 수주
  - 2011년 : 중국 대형은행 코어뱅킹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산 컴포넌트 컨설팅 서비스 수행완료

□ 비대면 계좌개설(케이뱅크)

○ (기대효과) “빠르고 편리한 금융거래”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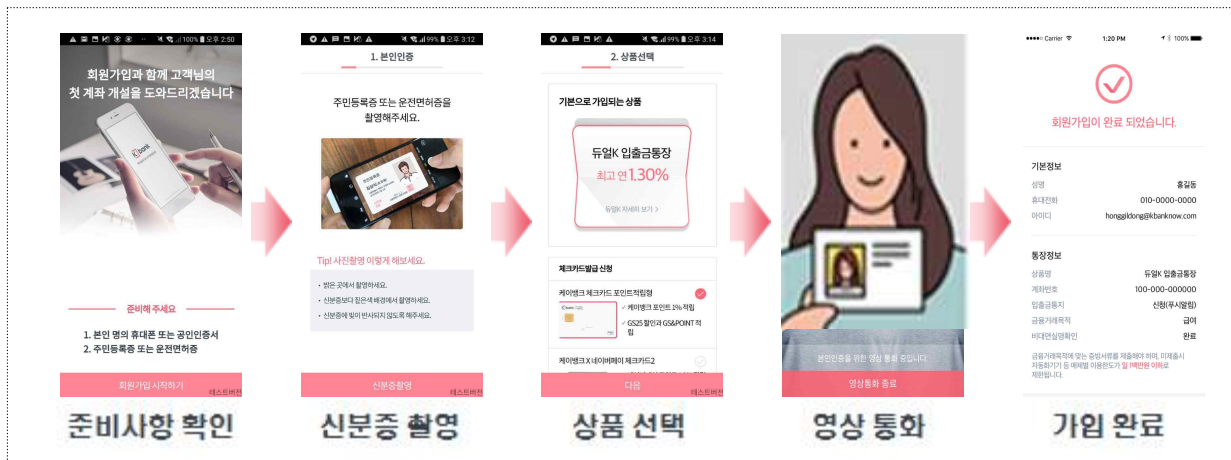
- 스마트폰만 있으면 공인인증서, 보안매체 없이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계좌개설에 걸리는 시간을 약 7~10분으로 단축

활용기술	인터넷전문은행 이전	인터넷전문은행 이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증·보안</li> <li>• 광학문자인식 (OCR)</li> <li>• 고객데이터 자동수집·확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은행 지점 방문 필요</li> <li>• 대기/서류작성 등에 평균 30~40분 소요</li> <li>• 은행 업무시간만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고객편의 확대)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이용 가능</li> <li>• (소요시간 단축) 10분 이내 계좌개설 가능</li> <li>• (접근성 확대)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</li> </ul>

○ (발전방향)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고객의 접근성 확대

- 자금거래 절차를 추가로 간소화하면서도 보안성은 고도화
- 디지털·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, 장애인 등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터페이스 지속 개선

<비대면 계좌개설 이용으로 인한 효과>



## □ 비대면 전월세보증금 대출(카카오뱅크)

○ (기대효과) 전월세 이사와 관련된 “국민불편 해소” 가능

- 평일로 이사일을 변경할 필요없이 주말이나 휴일에 이사하는 경우에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가능

\* 일반 은행에서는 주말이나 휴일 등 점포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 이사하는 경우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어려움

활용기술	인터넷전문은행 이전	인터넷전문은행 이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증·보안</li> <li>• 광학문자인식(OCR)</li> <li>• 고객데이터 자동수집·확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기 위해 은행 영업일에 맞춰 이사할 필요</li> <li>• 대기/서류작성 등에 1시간 이상 소요되며 지참한 서류를 분실할 가능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접근성 확대) 주말이나 휴일에도 전월세 이사 가능</li> <li>• (고객편의 향상)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이용 가능</li> </ul>

○ (발전방향) 비대면 금융거래의 적용대상 확대

- 서류·절차를 추가로 간소화하면서도 보안성은 고도화

- 복잡한 서류가 필요한 금융거래의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해결 가능한 범위를 확대

### <전월세보증금 대출 서비스 이용화면>



## □ 간편결제(페이콧)

- (기대효과) “카드 없는(cardless) 거래”, “단말기비용 경감”으로 소상공인과의 상생 실현
  - 스마트폰만 있으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모바일 앱을 통해 QR코드를 이용한 간편결제 가능
  - 상품을 판매하는 “소상공인의 단말기 비용 및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”을 통해 상생 실현

활용기술	핀테크 이전	핀테크 이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모바일결제</li> <li>• QR코드 및 카드정보 자동인식</li> <li>• 결제정보 암호화 등 보안 강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구매자) 카드가 없는 경우 복잡한 계좌이체 이용 필요</li> <li>• (판매자) 단말기 마련 및 거래 수수료 등 높은 비용부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구매자 편의 확대) 카드 없이도 손쉽고 간편한 결제, 원스톱 결제 제공</li> <li>• (판매자 비용부담 경감) 수수료 및 단말기 부담 경감</li> </ul>

- (발전방향) 별도 단말기나 VAN망 등이 불필요한 간편 계좌 결제의 편의성 및 범용성 제고
  - 결제정보를 인식하는 절차를 단순화하여 구매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사용을 유도
  - 계좌 결제망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적극 협업

### <간편결제 서비스 이용화면>



- 혁신적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안 총 5건이 국회 계류 중
  - “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”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 완화 등 기본취지는 동일하며, 법안별 세부 보완장치 등에 다소 차이
    - 산업자본(비금융주력자)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현행 4% → 50% 또는 34%로 상향
    - 일부 기업집단은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, 대주주와 거래제한을 강화하는 등 보완장치 마련

<발의 법안별 주요내용 비교>

	은행법 개정안		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(제정안)		
	강석진案	김용태案	정재호案	김관영案	유의동案
지분보유 한도	의결권 있는 주식의 50%		의결권 있는 주식의 34%		의결권 있는 주식의 50%
적용 제외	개인총수 있는 대기업집단	-	개인총수 있는 대기업 집단		-
대주주 신용공여 <sup>1)</sup>	-	금 지	원칙 금지, 예외 허용	금 지	자기자본의 10% 한도
대주주 발행증권 취득 <sup>2)</sup>		-			-

1) 일반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25%가 한도

2) 일반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1%가 한도